

일본기업의 생산거점 이전 현황조사

(2011.6.23)

[목 차]

요 약	01
I. 일본기업 생산기지 이전 추진 현황	03
1. 일본 내 생산기지 이전 / 03	
2. 생산거점 해외이전 / 07	
II. 일본정부의 대응	14
1. 일본정부의 대응 / 14	
2. 지방자치단체 대응 / 15	
3. 경제유관기관 대응 / 19	
III. 시사점	22
[별첨] 주요기업 생산이전 사례	25

작성 : 오사카KBC 양은영 차장·나고야KBC 홍승민 차장·
후쿠오카KBC 이상민 과장·도쿄KBC 임지훈 과장·
일본사업처 조 동 준 대리 (djcho@kotra.or.kr)

감수 : 일본사업처 정 혁 처장 (hchung@kotra.or.kr)

요 약

1. 일본기업의 생산기지 이전 추진 현황

□ 생산거점 일본 내 이전

- 지진이후, 지진피해 및 전력부족 등으로 서일본 지역이 대체생산지로 부각
- △상품공급수요 초과 발생, 사재기 등으로 증산이 필요한 식품·일용품 메이커 부터 시작 △자동차, 철강, 전기 등 일본 주요 제조업분야에서도 전반적으로 생산거점으로서 서일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일시적으로 서일본 지역에서 생산대체를 하거나 생산거점 일부를 이관하는 사례는 많이 발생하나 △코스트 및 시간적인 문제점, 피해지역 재건역할 요구, 종업원의 생활여건 문제 등으로 생산시설 전체를 이전하는 경우는 찾기 힘들
- 엔고, 전력공급의 불안, 지진 재발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일본기업들이 생산거점 이전 시 일본 내보다 해외이전을 검토하게 될 것으로 전망

□ 생산거점 해외 이전

- 고비용 구조와 엔고 지속, 신흥국과의 경쟁 등에 따른 가격인하 압력 가중에 따른 수익구조 개선과 중국 등 해외신흥시장 현지판매 전략의 일환으로 2010년 가을부터 일본기업들의 생산거점 해외이전 움직임이 가속화
- 지진 발생 이후, 리스크 분산의 차원에서 주요 금융 및 경제기관에서 해외 사무소 설치하는 등 해외진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일본 동북지역뿐만 아니라 중부지역의 전력상황까지 악화 △원자력 발전소의 운영정지로 화력발전비율 상승으로 비용 증가가 예상됨 △제조업의 해외이전에 대한 반발 여론 우려

2. 일본 정부의 대응

□ 국내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개선 검토

- 공장 해외이전에 따른 제조업 공동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규제, 환경규제 등 일본 내 공장입지와 관련한 규정을 대폭 완화하여 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여 공장 설립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
- 지진발생에 따른 컨트리 리스크 증대, 비용문제 등으로 해외로의 생산거점 이전 가속화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며, 현실적으로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별다른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임

□ 일본 자치단체의 대응

- 각 지자체에서 지진피해기업의 이전 및 유치를 위하여, 오피스 무료 대여, 각종 용자제도, 상담창구 개소 등 애로사항 해결 지원

□ 경제유관기관 대응

- 중소기업의 피해복구를 위한 용자지원, 일시고용사업 추진하는 등 복구지원관련 본부 설치

3. 시사점

- 엔고와 고비용에 따른 이전 움직임이 확인, 지진으로 생산거점 다원화 흐름
- 지진 피해지역 경제재건 여론 등으로 공장이전 시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 관심 표명 기업에 한정해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며 투자 시 한국 및 해외 시장진출 가능성 등 사업성 있는 장점을 제시해야 함

I

일본기업의 생산거점 이전 추진 현황

1. 일본 내 생산기지 이전

1) 동향 종합

□ 지진 이후, 서일본 지역이 관동지역의 대체 생산지로서 부각

○ 대지진 피해 및 원전사고에 따른 전력 부족 영향으로 인해 생산 중심지의 서일본으로의 이동이 가속화 되고 있음

- 이러한 움직임은 식품·일용품 메이커들로부터 가장 빨리 시작되었으며, 이는 피해지역으로의 상품공급수요 추가발생과 수도권에서의 사재기 등으로 증산이 필요하였기 때문임

* 야쿠르트(음료) : 교토 공장에서 대체 생산

* 이토 햄(식품) : 아이치·효고 공장 증산

* 유니참(일용품) : 카가와·시즈오카 공장 24시간 가동으로 전환 등

- 최근에는 자동차, 철강, 전기 등 일본 주요산업에도 이러한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어, 일본 제조업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생산거점으로서의 서일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 JFE스틸(철강) : 오카야마·히로시마 제철소 생산량 증가 검토

* 혼다(자동차) : 신차종 생산을 미에 공장으로 이관

* 루네서스(반도체) : 시가 공장에서 반도체 생산라인 신설 등

□ 반면 생산거점 전체의 이전은 어려운 상황

○ 일시적으로 서일본 지역에서 생산대체를 하거나 생산거점 일부를 이관하는 사례는 많이 나오고 있으나, 생산거점을 전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례는 많지 않음

- 생산설비, 인력 등 생산체제를 모두를 다른 지역에서 다시 구축하는 데에는 코스트 및 시간적인 문제점이 많이 발생
- 또한 피해 지역에서는 오히려 피해기업들이 현지의 고용을 그대로 유지하여 지역을 재건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들이 요구하고 있음
- 기존 생산지 종업원들의 이사 및 생활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문제 등도 있어 생산지 전체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찾기 힘들

<국내 생산거점 이전 관련 일본 경제 산업성 인터뷰>

일본에서는 2010년 가을부터 국내투자촉진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국내외기업으로부터 국내투자를 유치하고자 하였음.

지진이후 국내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새로이 신설된 정책은 피해공장의 자가발전시설 설치 및 복구공사와 관련하여 공장입지법의 규제완화가 있었음.

현재 국내 생산기지 이전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지자체마다 피해기업지원 방안을 각각 구상하여 피해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며, 정부에서는 국내기업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한 국내투자유치 강화방안을 구축하여 올해 6월경 발표 예정임

- 인터뷰 대상

- ① 경제 산업성 입지환경정비과장 Mr.Nakasone
- ② 관동경제산업국 지역경제부 산업입지실 Mr.Yamakawa

2) 산업별 동향

□ 자동차

- 닛산자동차는 완전자회사로 닛산자동차규슈 설립 결정
 - 코스트 경쟁력을 가진 국내생산거점의 구축책으로 규슈공장을 분사하고, 해외에서 부품조달율을 늘려 생산비용절감 검토
 - 국내에 증산하는 경우, 규슈를 최우선적으로 검토할 방침으로 규슈 시프트를 본격화

- 규슈의 2공장에서 50만대 이상 생산 목표

- 완성차업체는 단일발주처 부품업체들에게 재해 시 대체거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요청

□ 전기전자

- 대부분의 기업들은 생산거점 이전을 급격히 추진하기 보다는 동북 이외 국내 협력공장에서의 대체생산을 추진 중
 - 반도체 생산업체 Renesas는 10월까지 아오모리현 츠가루 공장, 에히메현 산조 공장, 야마가타현 츠르오카 공장 등에서 동북지역 생산물량 대체생산 추진 중
 - EPSON은 원전피해로 출입이 봉쇄된 후쿠시마 공장 대신 나가노 이나공장에서 대체생산 중
- 지진피해로 인해 관서지역으로 생산시설 이전을 검토하던 도시바, 후지쯔 등은 생산시설 복구 이후 이전 계획 수정

□ 기계

- 히다치제작소는 전력 반도체 조립기능의 일부를 후쿠시마현 공장에서 야마나시현으로 이전 결정
 -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대피권 내에 위치
 - 다이오드 조립기능의 일부를 히다치 전선필름디바이스(야마나시현) 공장 내로 이전
 - 월 1300만개 생산의 약 4%를 이전 예정

□ 철강, 금속

- 신일본제철 카마이시제철소 생산품, 타 제철소로 대체생산
 - 카마이시제철소는 타이어용 스틸 코드 등 자동차 관련 부품을 제조하는 제철소

- 카마이시제철소 조업 정지로 생산품의 일부를 타 제철소나 그룹 회사에 대체생산
- 도쿄제철 오카야마공장, 규슈공장으로 대체 생산 검토
 - 우츠노미야공장의 조업 재개 시기가 늦어지자 도쿄제철은 오카야마공장(오카야마현)과 규슈공장(키타큐슈시)으로 대체생산을 검토하고 있음
 - 우츠노미야공장의 생산을 재개할 수 있게 되더라도 계획 정전의 영향으로 조업 수준을 높이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한 것.

□ 화학, 고무

- 토요고무, 내수(미야기현)·수출용(미에현) 타이어를 일부 상호 이관하여 생산
 - 수출거점인 센다이항의 이용불가로 수출용은 미에현에서 생산하여 중부지역 항구에서 수출하기 위함
 - 지진으로 인해 해외생산이관 계획은 없음

□ 식품, 생활용품

- 종합식품제조사 산토리는 직접적인 지진피해는 없으나, 국내 원료조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 등에서의 해외생산 검토 중
 - 구체적인 결정사항은 아직 없는 상태
- 겐코코무(인터넷 통신판매) 일부 기능 규슈로 대체 이전
 - 도쿄에 본사를 둔 겐코코무는 5월 초부터 도쿄 본사의 기능 중 50%를 후쿠오카로 이전
- 이 밖에는 해외이전 움직임이 표면화되지 않은 상태

3) 향후 전망

- 생산거점 이전은 일본국내보다 해외를 먼저 검토할 것으로 전망

- 엔고문제 및 글로벌 성장축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신흥국으로 이동하고 있는 점으로 인해 일본기업들은 2010년부터 해외 생산거점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일본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생산거점의 해외이전이 중요해지고 있음
- 지진이후 아직 원전사고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다 전력공급의 불안정 상태가 장기화될 수 있어, 서일본 지역에서 대체생산을 하는 움직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향후 동일본 지역 외 일본에서도 대규모 지진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으며, 원전문제로 이번에 더욱 뚜렷해진 일본의 컨트리 리스크를 고려할시 앞으로 일본기업들이 생산거점 이전을 검토할 때 일본 국내보다 해외를 먼저 검토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2. 생산거점 해외이전

1) 동향 종합

2010년 이후의 해외생산 시프트 움직임 가속

- 일본기업들의 생산거점 해외이전은 2010년 가을부터 가속화되는 움직임을 보여 왔음. 수년째 고비용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다시금 붙어온 엔고 강세 기조에 중국 등 신흥국과의 경쟁에 따른 가격인하 압력이 가중되자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하여 해외로의 생산기지 이전을 적극 추진함
- 동일본대지진 발생 이후에 해외로 진출 하려는 움직임도 존재하는데 이것은 지진재해를 계기로 위기를 겪으면서 리스크 분산의 차원에서 주요 금융 및 경제 기관에서 해외에 사무소를 설치하는 등의 해외진출 적극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주요 제조업체도 기진출한 해외생산거점에서 분산생산을 하거나 기존의 계획을 앞당겨 조기에 해외거점을 설립하려는 동향이 있음
 - 특히 전 세계 시장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자동차, 전기 메이커는 지진 전부터

리스크 분산을 위해 부품을 조달받는 거래처를 다수 만드는 작업을 진행시켜 왔음

- 이른바 피라미드형의 조달망을 구축하려고 시도했으나, 고기능부품을 공급 가능한 기업이 한정되어 있어 실제로는 2차 거래처 이후는 조달처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짐
- 지진 재해로 이러한 약점이 현실로 드러나면서 생산이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속출, 해외고객으로부터 고기능 부품의 생산을 분산화 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어 실행에 옮기게 됨

- 제과업 분야에도 해외진출 움직임이 있는데, 대부분이 현지판매를 목적으로 중국에서 사업을 확대하여 공장신설이나 증설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예전부터 투자계획이 있던 분야를 예정보다 빨리 가동한 현상임

<해외 현지생산 비율의 추이>



자료원 : 일본 내각부경제사회종합연구소

□ 아시아진출 지원 데스크 설치 적극 조짐

- 일본지방은행 속속히 아시아진출 전문부서 설치한다고 보도 -
* 4월7일, 13일, 15일 (닛케이신문)

○ 나가노은행

- 아시아지역 진출지원 데스크를 본점에 설치, 미즈호그룹 및 컨설팅기업과 함께 해외진출 지원 강화

○ 시미즈은행

- 시즈오카현의 국제경제진흥회(SIBA)와 도시은행이 연계하여 해외진출에 관한 안내데스크를 설치(투자 및 판매)
- 지원대상은 중국, 동남아 진출을 희망하는 기계 제조업체 및 식품관련 기업

○ 치바현 케이요은행

- 미쓰비시UFJ 리서치와 제휴하여 해외진출에 관한 상담중개
- 앞으로 엔고 및 지진재해를 배경으로 생산거점이전 동향이 증가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7월을 목표로 해외사업에 관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

○ JETRO

- 중소기업의 아시아지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의 지방은행이나 신용금고에서 파견자를 모집 중
- 올 겨울을 목표로 해외거점 및 국내 상담데스크 안내원 연수에 주력하려고 함

2) 산업별 동향

□ 자동차

- 완성차 업체들은 현재 환율 수준(1달러=80엔)에서는 국내생산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 생산거점의 해외이전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

<日 주요 완성차업체 국내생산 비중>

구분	도요타	닛산	혼다
비중(%)	40	25	26

- 도요타자동차는 주력 승용차 '코롤라' 등 주요 수출차량의 생산을 해외 공장으로 이관하는 등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 대한 수출물량의 현지 생산 비중을 확대하는 형태로 해외이전을 추진 중
 - 닛산자동차는 지난해 소형차 생산기지를 도쿄 외곽 가나가와에서 태국 등 해외로 이전했으며, 오는 2013년부터는 SUV 로그도 미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등 해외생산 물량을 확대
-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동일본 지진을 계기로 해외 이전이 가속화될 전망
- 이는 △ 완성차 업체들의 생산거점 해외 이전 △ 자연재해에 따른 조달 리스크 분산 △ 신흥국으로의 이전에 따른 인건비 부담 억제 등과 같은 요인에 기인
 - 일부 부품업체들은 중국, 태국 등지에 대규모 부지를 취득, 지진 영향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이는 '12년도 이후 생산에 착수하여 수익률 제고 방침
 - 한편 투자여력이 없는 부품업체들은 국내 의존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향후 부품업체간 수익격차 확대 전망
- 이 같은 완성차, 자동차부품 업체의 해외생산이 확대되면서 전체 출하물량의 50%를 동 업계에서 확보하고 있는 특수강 업체들도 해외 현지 진출을 확대
- 일본의 중소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들이 공동으로 중국 장쑤성에 일본자동차 부품단지(JAPIC)를 구축중이며, 5년 내 400개가 넘는 회사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 전기전자

- 소프트뱅크는 5.30일 데이터센터의 한국이전을 결정
 - 9월 합병회사 설립, 10월부터 본격 가동예정
 - 총 투자액은 20억엔 규모
- 이 외 대부분의 기업이 즉각적인 해외이전 보다는 해외 협력공장에서의 대체 생산 확대 등을 추진
 - 통신 및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사 Hirose는 지진피해 입은 동북지역 생산공장 대신 중국, 인도네시아, 한국의 공장에서 대체생산 중
 - 히타치는 중소형 액정판넬 생산을 대만 협력공장(CMI)에서 위탁 제조 추진
- JETRO의 조사에 따르면, 아세안 지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의 40%가 일본 국내에서의 조달 대신 현지조달 비율을 늘리겠다는 입장

□ 기계

- 공작기계업체들은 올해부터 해외 생산거점을 보다 확충할 계획
 - 중국 등 아시아 시장의 스마트폰 수요확대에 따른 자동선반기계 수요 확대 등을 감안하여 현지 증산체제를 구축 중
 - 북미시장에서도 자동차 관련 수요를 중심으로 시장이 회복되고 있어 현지 재투자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음

<주요 공작기계업체 해외 증산계획>

기업명	'12년도 투자금액	내용
쓰가미	25억엔	중국 공장의 생산규모를 월 1000대로 증강
시티즌 홀딩즈	30억엔	태국 공장 증산 등 해외에서 월 650대 생산체제를 구축
마키노 프라이어스	46억엔	중국, 동남아 생산능력을 70% 가량 증강
아마다	188억엔	중국에서 판금기계공장의 신설, 미국에서 레이저 가공 기계 공장 신설국

- 중부지역의 대형 공작기계업체들도 △ 지속적인 엔고 △ 중국 시장의 급성장에 대한 대책으로 현지생산을 강화
 - 모리 정밀기계제작소는 세계최대규모의 중국 공작기계업체 瀋陽机床과 합작회사를 설립, 중국에서 소형 MC 건설을 추진 중
 - 야마자키 마작, 오쿠마도 수주가 급증하면서 현지생산 확대를 검토 중이며, 브라더공업도 지난해부터 중국에서 소형 MC 현지생산에 착수한 바 있음

□ 철강, 금속

- 일경 패널 시스템, 태국에 첫 해외 공장 건설
 - 일경 패널 시스템은 내년 7월 생산 개시를 예정으로 단열 패널을 생산하는 공장을 태국에 건설한다고 5월 11일 발표.
 - 일경 패널은 일본경금속이 100% 출자한 자회사로 냉장고, 냉동고용 단열 패널이나 클린 룸용 내장 패널 분야에 있어 일본 세어 톱
 - 지금까지 해외 수요는 일본에서의 수출로 대응하고 있었으나 현지 품질 향상, 안정 납기 등을 이유로 태국에 공장 건설 결정

□ 화학, 고무

- 스미토모화학, 중국 대련에 고기능수지 공장 신설
 - 스미토모화학은 자동차용 범퍼, 자재 등의 원재료인 고기능 수지 폴리프로필렌을 생산하는 공장을 중국 대련에 신설
 - 중국 진출 인본 자동차 메이커와 현지 자동차 메이커 등 수요 획득이 목적으로 2012년 가을 조업 개시 예정
 - 투자액은 12억엔, 연간 생산 능력은 1만톤으로 예상
- 머크주식회사, 독일에 생산 거점 신설 표명
 - 안료 메이커인 독일의 머크는 도요타의 펄 광택 안료인 시라릭크의 안정 공급을 위해 독일에 시라릭크 생산 검점을 신설할 것을 표명
 - 머크는 현재 후쿠시마현의 오나하다 공장에서만 시라릭크를 생산 하고 있어 동일본 대지진 이후 생산, 출하가 정지되어 있었다가 5월 8일 생산 재개하였음

- 히타치화성, 해외 생산 증강
 - 4월 26일 중국에 자동차용 수지성형품 제조 공장 신설 발표
 - 5월 6일 히타치화성은 20억엔을 투자해 멕시코 공장을 증설, 북미용 브레이크 패드 생산 능력을 현재 500만개에서 1000만개로 늘릴 것이라 발표.
- 스미토모고무, 브라질에 타이어 생산, 판매 현지 법인 설립
 - 5월 17일 스미토모고무는 브라질에 약 280억엔을 투자해 타이어를 생산, 판매 하는 법인을 설립한다고 발표
 - 신흥 시장인 브라질의 자동차 수요 확보 및 고관세, 원격지 수송에 따른 물류 코스트 절약을 위해 현지 생산 거점 설립이 불가결이라 판단

□ 식품, 생활용품

- 종합식품제조사 산토리는 직접적인 지진피해는 없으나, 국내 원료조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 등에서의 해외생산 검토 중
 - 구체적인 결정사항은 아직 없는 상태
- 이 밖에는 해외이전 움직임이 표면화되지 않은 상태

3) 향후 전망

□ 해외 이전 가속화 경향이 지속

- 동북 및 동일본 지방뿐만 아니라 중부전력의 하마마쯔 원자력 발전소의 전면적인 운영 정지가 결정되면서 중부지방의 전력사정이 악화되었음
 - 앞으로 일본은 화력발전비율 상승으로 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비용이 높아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음
 - 제조업의 리스크 분산이나 전력공급 리스크 요인으로 앞으로 해외이전을 검토 하려는 기업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됨
- 단, 당분간 일본기업의 해외 이전에 대한 여론의 반발이 우려되므로 공개적으로 이전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공개적인 생산 거점 이전보다 우선 단계적인 생산 이관이나 대체 생산 등이 늘어갈 것으로 예상됨

II

일본정부의 대응

1. 일본정부의 대응

- 국내투자 촉진을 위해 파격적인 정책개선 검토
 - 2010년 이후 일본기업의 생산거점 해외 이전 적극 추진 움직임을 이미 일본 정부도 파악하고 있음
 - 2010년 11월에는 『일본국내 투자촉진 프로그램』을 책정하여 국내 산업 공동화 회피와 외국기업 유치를 도모하고 있었음
 - 동 프로그램의 주요 정책으로서 법인실효세율 대폭 인하를 내걸고 있었으나, 3.11 대지진 이후 복구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 때문에 실행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 한편 지진 발생에 따라 일본에 생산거점을 두는 것에 대한 비용문제와 리스크가 증대, 일본기업들의 해외로의 생산 거점 이전 가속화는 피할 수 없는 상황
 -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 장기적 전력부족 우려, 비슷한 자연재해 재발에 따른 리스크 분산 필요성 등 일본의 컨트리리스크가 밝혀졌음
 - 하지만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여론을 배려하여 공개적으로 해외진출을 추진한다고 발표할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됨
 - 일본정부는 5월 22일에 법인세율 인하의 대체 정책으로서 공장건설 관련 규제 대폭 완화 방침을 발표.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음
 - ① 공장입지법 (올해 여름에 개정 예정)
 - 현행 규제에 있어서 대규모 공장은 원칙 부지면적의 20% 이상 녹지를 확보해야 함. 단, 지방자치체가 조례로 정하면 10~30%로 변경할 수 있음
 - 개정 후에는 지자체가 최저 5%까지 인하조치 가능
 - 또한 현행 옥상이나 주차장의 녹지는 25% 밖에 전체 녹지면적에 놓을 수

없으나, 개정 후에는 지자체의 판단으로 최대 50%까지 가능

② 토양오염대책법(올해 여름에 개정 예정)

- 현행 제도상에서 지하수 등을 통해 주변 지역의 수자원을 오염하지 않도록 초기에 충분한 대책을 취해야 함
- 이에 대해 건설이전 조사 단계에서 발견된 오염물질이 일반적으로 자연 상에 존재하는 물질로서 상대적 피해가 적다고 판단되면 주변 수질조사 등 간단한 대책만으로 공장을 건설 할 수 있게 됨

③ 소방법 관련 규정 (금년 중 개정 예정)

- 현재 가솔린 등을 다루는 파이프는 5~15미터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규제되고 있으며 이 경우 파이프 배치가 복잡하게 되어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이 됨
 - 개정 후에는 안전성의 확보나 지자체에 의한 허·인가를 조건으로 해서 파이프 간격을 좁혀서 설치가능
- 일본정부는 위와 같이 지진 복구로 인한 재원이 부족한 점을 상쇄시키기 위해 규제 대폭 완화를 통해 기업 해외 이전 대책을 진척시킬 방침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별다른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임

2. 지방자치단체 대응

□ 관동지역 지원내용

- 경제산업성 산하기관인 관동경제산업국에서는 관동권내의 투자촉진을 위해 국내투자촉진 광역관동본부를 설립하여, 2월1일에 회견을 개최하였음
- 이후 3월 중순에 2차 모임을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지진으로 인해 연기된 상황
- 각 지자체에서 지진피해기업 국내이전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현재 이전계획이 진행 중에 있음

아오모리 현 지원내용

① 지진재해 이직자 고용지원

- 직접 피해관련 해고자 1명이상 고용기업 (최대 1억엔 이상, 금리:0.8%)
- 현 외에서 피난한 구직자 1명이상 고용기업 (최대 1억엔 이상, 금리:0.8%)
- 융자기간 : 운전 10년, 설비 15년 이내

② 동북대지진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

- 지진에 의한 간접피해로 사업활동에 영향을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000만엔 한도
- 융자기간 : 10년(보류2년), 연리 1.0% ~1.5%

③ 동북대지진 중소기업 재해복구지원

- 지원액 1억엔, 연리 0.8%
- 융자기간 : 10년(보류2년)

야마가타현 지원내용

① 임시 오피스 무료 대여

- 지진피해지역, 후쿠시마 원전 피난 지역 대상
- 정보 및 디자인 업종 관련
- 창업 5년 이내 또는 고도기술 연구개발기업이며, 10명이하의 기업 또는 개인
- 기간 : 입주부터 6개월

② 지진재해 대응

- 3000만엔 한도, 연리 1.6%
- 융자기간 : 10년(보류2년)

치바현 지원내용

- 인큐베이션 오피스 무료대여
- 지진피해지역, 후쿠시마 원전 피난 지역
- 기간 : 최대 1년간

□ 사이타마현 지원내용

① 공장용지 소개

- 공장소득세 보조 한도 1억엔
- 공장신설 확정 20억엔 용자지원 등
- 지진피해지역, 후쿠시마 원전 피난 지역 대상

② 지진재해 복구

- 5000만엔, 연리 1.3~1.4%
- 용자기간 : 설비 10년(보류2년), 운전7년(보류2년)
- 재해관련보증료 0.65%(9월11일 까지)

□ 토치기현 지원내용

- 공장재건 지원
- 공업단지 및 공업용지 소개
- 보조금 용자지원 등
- 지진피해 지역, 후쿠시마 원전 피난 지역 대상
- 기간 : 최대 1년간

- 기타, 후쿠시마에 인근 이바라기 현에서는 구체적인 정책이 공개되어있는 않으나 피해기업의 이전상담이 진행 중

□ 오사카 등 관서지역 지자체는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활용하기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

- 한신항(오사카항·코베항) 및 간사이공항을 동일본 물류기능 이전지로 조성 계획
 - 동북지역 기업의 이전 지원을 위한 '기업애로지원센터' 설치 등

<관서지역 주요 지자체별 지진피해 기업 유치 지원 정책>

지자체	주요 대책
오사카부	잉여 공단용지 등의 정보제공
교토부	피해지역 기업 거점 설치 지원
오사카시	유메시마 공단 유치를 위한 임대차 제도 마련
고베시	관할 공단지역에 피해기업 대체 거점 제공
사카이시	산업용지 확보 노력

- 동북, 관동 지자체들은 동일본 지진으로 건물·설비 손괴 등과 같은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계획 정전, 거래처의 실적 악화 등과 같은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신설·확충
 - 피해규모가 큰 미야기현에서는 450억엔 규모의 용자한도를 책정, 중소기업들에게 용자를 제공
 - 이바라기현에서는 원자력 발전사고로 출하제한 등의 피해를 입은 농업업자를 대상으로 무이자로 긴급자금을 지원
 - 치바현은 62억엔 규모의 추경예산을 계상했으며, 군마현은 재해복구를 위한 자금용자제도의 금리를 1.9%에서 한시적으로 1.3%로 인하
- 후쿠오카현 지원내용
 - ‘일본 부흥 기업 지원 원스톱 센터’ 설치
 - 후쿠오카현은 동일본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4월 11일 ‘일본부흥기업지원 원스톱센터’를 설치
 - 당 센터에서는 공장 단지, 공업용수, 전력, 비어있는 공장, 인큐베이션 시설, 사무실 공실 등 인프라 정보뿐만 아니라 인재, 후쿠오카현 내 중소기업들을 소개해 줌

- 또한 후쿠오카현 내 입주 기업들을 위해 주택 알선, 학교, 병원 등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함
- 긴급 용자 제도 창설
 - 후쿠오카현은 동일본대지진으로 공장, 영업소 등이 피해를 입었거나 매상이 감소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긴급 경제 대책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창설
- 자동차관련기업지원상담 창구 개소
 - '규슈북부 자동차생산 150만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후쿠오카현은 동일본대지진의 영향으로 자동차 관련 기업이 지진 이전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지원하는 상담 창구를 설치
 - 후쿠오카현 내 자동차 관련 기업의 자금 순환, 고용 유지, 수주 확보, 인재 육성, 기술 개발 등을 지원
 - 또한 중소기업지원 기관등과 연계해 자동차 관련 상담회를 4월 25일 개최

3. 경제유관기관 대응

□ (사)일본경제단체연합회

- 일본경제단체연합회에서 전 회원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지진재해의 조기 복구·부흥을 위한 규제개혁 요망의 긴급조사를 실시하여 정부에 제출하였음 (실시기간 4월11-20일, 제출 4월28일)
- 규제개혁요망에 관한 조사 요망건수
 - 회신기업 수 95건
 - 요망 건수 281건
 - 규제개혁요망으로 제출한 항목 수 171건

○ 분야별 항목 수 정리

분야	항목수
토지·주택·도시재생·관광	21
운수·유통	24
농업·식품	3
폐기물·재활용, 환경보전	45
위험물·방재·보안	23
에너지	16
정보·통신, 방송	6
금융·보험·증권	17
고용·노동	12
통상·국제협력	1
기타	3

* 경제단체 및 업종별 단체 요구(건의) 사항 취합, 대정부 건의 등

□ 관서경제연합회 등 6개 경제연합회로 구성된 서일본경제협의회가 4월초 '관서협지진부흥지원본부' 설치

○ 복구 및 부흥지원, 규제개혁, 세제/재정/금융상의 지원조치, 인프라 정비 등에 대해 기업을 대표하여 대정부 건의 기능 담당

* 경제단체 및 업종별 단체 요구(건의) 사항 취합, 대정부 건의 등

□ 동북, 관동 지자체들은 동일본 지진으로 건물·설비 손괴 등과 같은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계획 정전, 거래처의 실적 악화 등과 같은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신설·확충

○ 피해규모가 큰 미야기현에서는 450억엔 규모의 융자한도를 책정, 중소기업들에게 융자를 제공

- 이바라기현에서는 원자력 발전사고로 출하제한 등의 피해를 입은 농업업자를 대상으로 무이자로 긴급자금을 지원
- 치바현은 62억엔 규모의 추경예산을 계상했으며, 군마현은 재해복구를 위한 자금융자제도의 금리를 1.9%에서 한시적으로 1.3%로 인하

□ 후쿠오카현 중소기업단체중앙회

- 중소기업 특별상담 창구 설치
 - 3월 13일, 동일본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 상담 창구를 설치
- 피해지중소기업복구대응을 위한 일시고용사업 추진
 -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 지역에서 후쿠오카현으로 피난 온 사람들의 직업 능력 유지를 목적으로 일시 고용 사업을 추진
 - 8월 1일부터 고용을 개시해 내년 2월 말까지 사업을 전개할 예정

□ 일본기업의 생산거점 이전 움직임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안

○ 엔고와 고비용에 따른 이전 움직임 확인

- 이번 주제관련 조사를 진행한 결과 실제로 극심한 엔고와 고비용으로 인한 부담을 견디다 못한 일본기업들의 해외로의 생산거점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확인되었음
- 반면, 이것은 지진발생으로 인한 결과라고 보기에는 힘들며 특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위치한 기업들의 경우 더더욱 그러함

○ 지진으로 생산 거점 다원화 흐름

- 지진으로 생산설비에 직접 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우 피해지역에서 생산하던 제품의 제조를 임시적으로 다른 지역의 가동률을 높여 만들어내는 등의 방법을 취하고 있음
- 다만, 지진으로 부품생산 집중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생산거점을 다원화시키는 흐름은 이어질 것
- 자동차, 전기전자업체들은 고기능부품을 공급 가능한 기업이 한정되어 이번 지진재해로 생산이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속출하자, 리스크 분산을 위해 부품 조달처를 다양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

○ 피해지역 경제재건 여론 등으로 공장이전 시도는 현실적 불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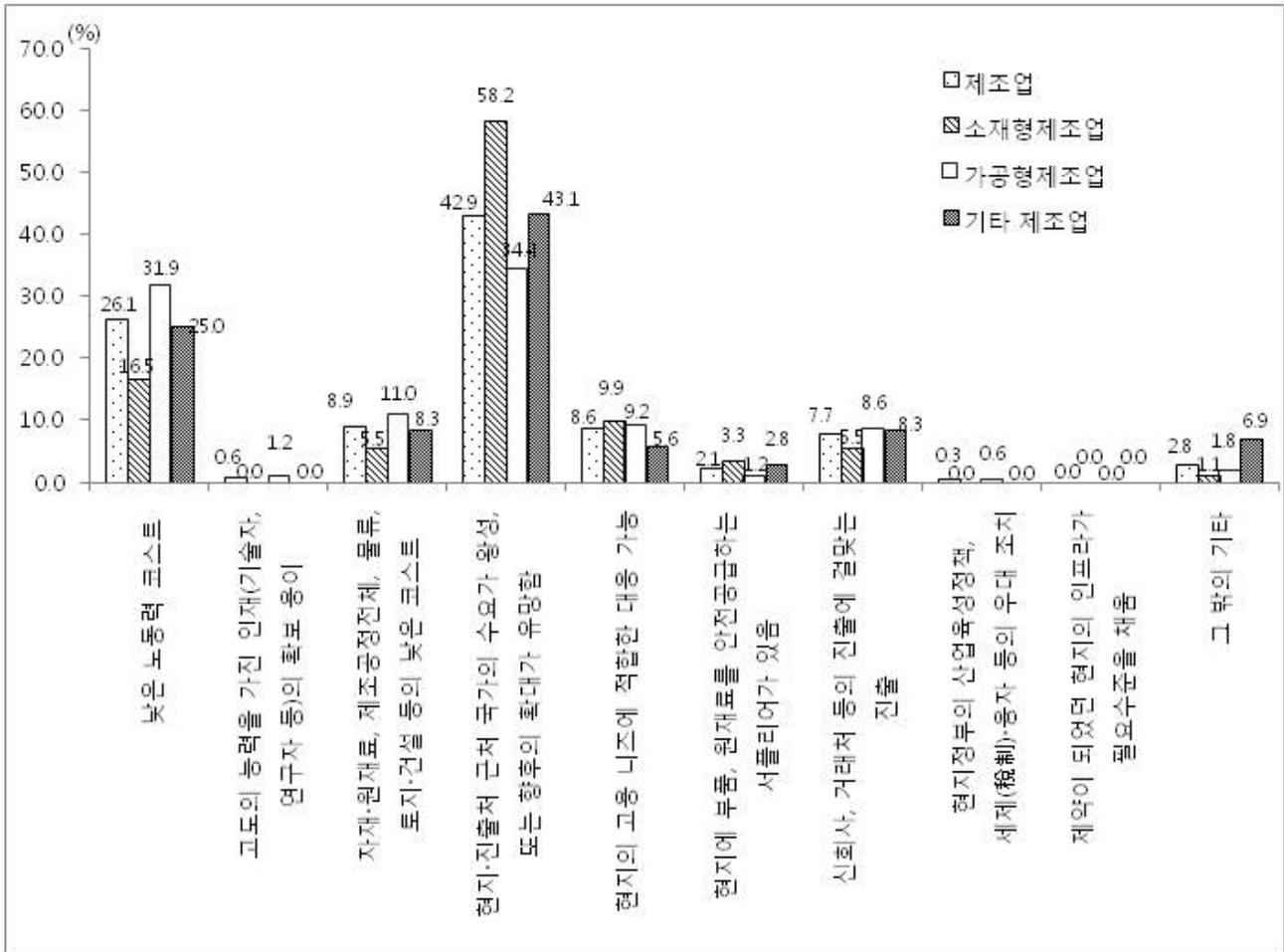
- 실제로 피해지역의 공장자체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공장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의 고용문제를 비롯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연계 등 여러 가지 사항으로 얽혀있어 좀처럼 시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
- 그러한 이유로 생산설비를 다시 건설한다고 해도 해당 지역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지역을 후보지역으로 검토를 하는 식의 움직임이 주를 이루고 있음
- 또한 일본정부를 비롯하여 경제계의 분위기는 막대한 피해를 입은 피해지역의

경제를 어떻게든 되살리기 위해서 가능한 현지의 기업과 연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기업의 입장에서조차 현지경제에 이바지하며 재건을 도모하고 있음

- 관심 표명 기업에 한정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 전체적인 여론을 감안했을 때도 피해지역 대상으로 對한국 투자유치활동을 벌이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오히려 반감을 사게 되어 국가적인 이미지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
 - 이에 적극적인 일본기업 생산거점 이전과 연계한 사업은 지진 피해지역을 제외한 기존에 해외진출에 관심을 표명해온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조심스럽게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
 - 또한 이번 후쿠시마 원전에 따른 방사능 사태가 장기화가 불가피해 수출에 큰 지장을 겪게 될 것을 우려 해외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을 맞춤형으로 접촉한다면 효율적일 것으로 분석됨

- 시장진출 등 사업성 있는 장점을 제시해야
 - 지리적 인접성이나 비용 경감만으로는 일본기업의 對한국 투자를 유인하기에 역부족임
 - 일본기업 해외현지생산비율의 지속적인 상승 역시, 중국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해외에 대한 인식이 이전의 「싼 노동 비용을 유지하는 선진국대상 제품의 생산 거점」에서 「대소비지」로의 변화에 기인한다는 걸 주목해야 함
 - 일본기업이 한국에 투자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도 바로 국내 시장진출. 한국 대기업 납품 등 한국으로의 수출이 증가하여, 수출보다는 한국 내 생산이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주는 경우가 한국으로의 투자로 이어지는 가장 많은 사례임
 - 따라서 일본기업의 한국 투자가 성공적인 국내 시장 진출은 물론 해외시장으로의 수출로 발전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 필요함

<생산거점 해외이전 이유>



자료원 : 일본 내각부경제사회종합연구소

【별첨】 주요기업 생산이전 사례

□ 국내 타 거점으로 이전

회사/공장	업태/생산품	대응
후지츠/나스공장 (도치기현)	모바일 시스템, 휴대전화	야간조업 외 효고현 가토시의 공장에서 생산 증대하여 보충
리코/누마츠사업소 (시즈오카현)	사무기용 토너	수도권 이외의 공장 활용 및 해외에서 증산체제를 고려
메이코/후쿠시마공장 (후쿠시마현)	게임, OA기기용 프린트 기반	야마가타공장 및 카나가와공장에서 대체생산
무라타제작소/ 센다이공장 (미야기현)	콘덴서	이시카와현 공장에서 대체생산 실시 (※ 5.23 센다이공장 생산 재개)
소니/아츠기테크놀로지센터 (카나가와현)	카메라용 반도체 설계, 개발	설계부대의 일부를 홋카이도 및 규슈거점 으로 이동
니혼세이코/후지사와공장 (카나가와현) 등	베어링	서일본지구의 공장 및 해외거점에서의 증산으로 보충
니혼햄/이바라기공장 (이바라키현)	햄, 소시지	오노공장(효고현)을 메인으로 서일본의 생산 거점으로 증산체제 구축
시세이도/가마쿠라공장 (카나가와현) 등	헤어케어제품, 화장품	동일본의 각 거점에서 카케가와공장(시즈오카 현), 오사카공장으로 생산이관 고려 중
닛산자동차	완성차	'11.8.1 닛산자동차규슈(후쿠오카현)설립예정. '11.10.1부터 사업개시 예정 규슈공장 50만대 생산으로 국내생산 100만대 유지 계획
겐코 코무 / 도쿄 본사	인터넷 통신판매	'11년 5월 초부터 도쿄 본사의 기능 50%를 규슈의 후쿠오카로 이전
후지쓰반도체/ 이와테현 공장	반도체	이와테현 반도체 생산라인을 중남부 미에현 구와 나시 공장으로 이전시킬 방침

□ 해외생산 확대 및 이전

회사/공장	업태/생산품	대응
미쓰이금속/ 사이타마공장 (사이타마현)	휴대전화 부품	'11년 7월부터 생산라인 일부 말레이시아, 대만, 미국공장 중 고객양해에 따라 해외이전
산덴/앗타지마사업소 (군마현) 등	자동차용 에어컨프레서	동남아시아 등에서의 해외전개 가속
메이코/미야기공장 (미야기현)	휴대전화용 에너지어 기반	중국공장으로의 생산이관 진행
니혼케미콘/다카하기공장 (이바라키현)	알루미늄재료의 가공공정	해외증산계획을 앞당겨 진행
히타치디스플레이/ 모바라공장(치바현)	액정 패널 등	'11년 8월부터 대만 CMI에 위탁생산 대폭 확대
닛신전기/교토 본사	스위치기어	중국 다롄에 위치한 자회사로 생산시설 일부 이전 검토 중
HOYA / 나가사카 사업소(야마나시현)	반도체용 부품소재	현재 부지 선정 중. 1년 반 후에 해외 생산 시작 예정
르네사스일렉트로닉스/ 가나공장(이바라키현)	반도체	미국 및 대만 수탁제조업체에 대한 위탁량을 늘릴 계획
리코(미야기현)	복합기용 토너	미국 거점 생산을 검토 시작
덴소 (아이치현)	자동차부품 전반	일본 국내에서는 기술개발 중점. 생산설비 투자는 신흥국으로 확대
아이신 精機 (아이치현)	구동장치, 엔진 등	중국 등 신흥국에 대한 설비투자 이전 확대
후타바산업	배기관 관련 부품, 서스펜션 등	중국, 인도에서 머플러 증산
에이치원	차체, 금형용접설비 등	태국에 신규공장 건설 및 로봇 도입을 통한 자동화 설비 확충
케이힌	파워트레인, 공조 관련 부품	아시아를 중심으로 4륜, 2륜차량용 연료분사 장치 증산
칼소닉 칸세이	공조, 배기 관련 부품	중국에서 콤프레서 회사 설립. 태국 등 신흥국 에서도 생산 확대
NOK	오일씰 등	리스크 분산을 위해 변속기용 오일씰 생산시설 의 일부를 중국, 태국 두 공장리로 이전 예정
아케보노 브레이크공업	브레이크 관련 부품	후쿠시마현 소재 자회사에서 생산하는 브레이크 부품을 인도네시아 또는 태국으로 일부 이전할 계획

<끝>

Kotra Executive Brief 11-011

일본기업의 생산거점 이전 현황조사

발행인 | 홍석우
편집인 | 곽동운
발행처 | KOTRA
발행일 | 2011년 6월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우 137-749)
전화 | 02) 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